

心身同一論

— 金在權教授의 理論을 中心으로 —

蘇 興 烈

(梨花女大)

1. 現代的 唯物論

心身同一論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은 오늘날 英美哲學界에서 중요한 한 분야로 관심을 모으는 心理哲學(Philosophy of mind)의 중심 문제이다. 심리철학의 관심 문제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라든지 인간행동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의 가능성 문제 같은 것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심신동일론의 문제이다.

심신동일론이 하나의 哲學的 問題로 대두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現代的 唯物論의 영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양철학의 역사에는 古代 그리스철학에서부터 唯物論의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시대마다 유물론이 새로운 관심을 모으는 哲學의 입장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은 自然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새롭게 되어가기 때문인 것 같다. 現代的 唯物論도 이런 뜻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自然에 대한 人間의 이해는 自然科學의 發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自然科學의 비약적인 發展에 影響을 입은 現代的 唯物論은 아마 다른 어떤 때의 唯物論보다 더 강한 哲學的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現代科學은 우주의 역사에 대하여,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思考能力에 대하여 아주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 준다.

아직도 완전한 설명은 못된다고 하지만 現代科學 이전의 어떤 과학이나 종교에 의한 설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설득력있는 설명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행동을 포함한 모든 자연현상의 변화

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라든가 창조주같은 존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自然科學의인 研究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모든 자연적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하는 自然科學의 방법과 힘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다면 다른 비자연과학적 방법이나 세계관은 필요없게 되는 것이다. 自然科學의인 세계관이란 모든 존재하는 것은 物質의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물질적인 것의 전부라고 할 때 이 우주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초월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우주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이면서 물질적인 바탕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순수한 정신이나 영혼의 존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唯物論의인 科學의 세계관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물질의 세계라고 할 自然科學의 世界를 유일한 世界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一元論的 세계관이 되는 것이다.

唯物論的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원론이지만, 자연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는 二元論이 될 수도 있고 多元論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동양의 陰陽說 같은 것은 이원론적 唯物論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無生物과 生物을 구별하는 生命力 같은 것이 존재해야 하고, 다른 생물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理性的 힘 같은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면 이것은 進化論과는 다른 일종의 다원론적 이론이 될 것이다. 또한, 현대 物理學에서의 統一場理論 같은 것은 자연세계의 모든 변화를 일원론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하는 인간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과학의 분야들을 物理學으로 환원시켜서 통합해 보고자 하는 입장도 다원적인 것에서 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 욕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물론적 세계관 자체는 초자연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일원론이지만, 유물론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데 까지도 일원론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심신동일론은 유물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되 **Descartes** 처럼 이원론적으로

보지않고 일원론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2. 心身同一論

마음을 몸과 다른 어떤 독립된 존재로 보면서 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몸에 영향을 주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원론은 Descartes의 경우처럼 몸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위치 또는 장소를 부여해야하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마음은 몸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 팔이 하나 없어도 몸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지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몸과는 다르면서 몸과 연결되어 있을까? 그래서 몸의 실체에 대한 마음의 실체를 말하기 보다는 신체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을 구별해서 이원론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심리적 현상이다. 그런 것은 숨쉬고, 소화하고, 운동하는 등의 신체적 현상과는 구별이 된다.

이원론의 주장은 이러한 구별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심신동일론은 심리적 현상도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심신동일론의 난점은 엄연히 구별되는 심리적 현상과 신체적 현상 또는 물리적 현상을 동일한 것이라고 할 때 그 동일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심리적 현상의 실재성을 부정하거나 심리적 현상을 표현해주는 언어가 불필요한 것이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엄밀한 뜻에서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 A와 B가 서로 동일하다고 하려면 A, B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실재함을 인정하되, A와 B가 어떤 면에서 동일한가, 즉 어떤 면에서 A와 B는 전혀 구별될 수 없는가를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재권교수는 심신동일론에 관한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In spite of its rather short history, the identity theory does have some fairly clear-cut features that identify it as a well-defined position on the relation of mind and body.

As I see it, the fundamental tenet of the theory is that it is a *physicalist monism that retains mental events as legitimate entities in*

the world. That is both its central attraction and the source of its gravest difficulties. And it may prove to be the cause of its downfall. But if you take it away, you take away the identity theory ; and if you take away sensations and other mental events, then you take away that central core of the identity theory. If the identity theory is to be defended, we must defend it without eliminating mental events *in toto*. Moreover, if the identity in the identity theory does not measure up in any way to the law of indiscernibility of identicals, then either the theory is false, or else we do not have an identity theory.

(Kim, 1972, 180)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김재권교수의 입장이 갖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Mental expression”이나 “Psychological sentence”로서 동일론을 표현하지 않고 “Mental event”로 표현한 것에 있다. 심리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것의 특징을 심리적 언어의 특징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을 동일론에 대한 *linguistic approach* 라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심신동일론이란 심리적인 언어로 서술되는 모든 것은 또한 물리적인 언어로도 서술될 수 있다는 주장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 언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하는 일이다.

김재권교수는 이 언어적 입장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자기는 *Ontological approach* 를 택한다고 한다.

이 존재론적 입장은 *events, states, properties* 그리고 *facts* 같은 것 중에서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별하고 그들간의 동일성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Kim, 1971, 324-5. 342-3).

존재론적 심신동일론은 어떤 종류의 심리적 상태 또는 현상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상태 또는 현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태”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며 두 상태들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재권교수는 하나의 *event* 를 *property* 와 *time* 과 *place* (또는 *particular*) 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즉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한 장소에, 어떤 특정한 속성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한 개체가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의 상태라든지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곧 그가 어떤 물리적(신체적)상태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심신동일론의 주장이 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과 개체가 동일하지만 하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상태라고 할 때 그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해주는 두 가지 속성, 즉 심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어떻게 동일한 것일 수 있느냐가 문제시 된다 (Kim, 1966, Brandt and Kim, 1967).

이와 같은 심신동일론이 주장하고자 하는 동일성은 비유컨대 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와 그 물체의 분자운동 에너지가 커진 상태가 두 가지 다른 속성들을 가진 상태들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심리적 속성이 곧 물리적 속성이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리적 속성으로 된 심리적 상태가 만일 그것을 가진 개체와 그 시간이 같을 때, 그러한 물리적 속성으로 된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심리적 속성 중에서 물리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해 주는 것이 있다면 심신동일론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Differential property”라고 하는데, 동일론을 비판하는 논의 중에 중요한 한가지는 이런 종류의 Differential property를 제시하는 반론이다.

Differential property로 제시된 예의 하나가 잔상(after-image)이다. 가령, 내가 빨간색의 잔상을 보았을 때 나의 뇌속을 들여다 보는 사람도 빨간 색의 어떤 물질을 보게 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김재권교수의 답변은 우선 잔상이란 것을 하나의 개체로 생각한 것 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빨간색이라는 속성을 가진 잔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빨간색의 잔상을 보는 나의 심리적 상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빨간색의 잔상을 보는 나의 심리적 상태”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물리적 상태 또는 나의 어떤 Brain state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다 (Kim, 1972, 178, 180-4).

Differential property는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론자가 정리해 주어야 할 또 한 가지 문제는 심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정의해 주면서 사실상의 동일성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하

는 일이다. 김재권교수는 이 문제를 認識論의 기준과 空間性的 기준이란 두 가지 기준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물리적 속성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며, 심리적 속성은 직접적인 의식(Direct awareness)으로 알게 된다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했을 때 내가 어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므로 심리적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떤 물리적 상태(Brain state)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후자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도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나의 통증이 어디 있느냐를 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통증을 느끼는 나의 체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그 때의 나의 Brain state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을 답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Kim, 1971).

이상과 같은 존재론적 심신동일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자면,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를 구별할 수 있으나 심리적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태는 결국 물리적 상태가 되고 만다. 물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상태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 상태들 중의 어떤 것은 동시에 심리적 상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물리적 상태와도 동일하지 않는 독립된 심리적 상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원론적 유물론이 되는 것이다.

3. 同一論의 經驗的 근거

심신동일론을 받아 드린다면 어떤 하나의 상태가 심리적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물리적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태들 간에는 일치관계가 성립되게 될 것이다.

즉 M이란 심리적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P라는 물리적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P라는 물리적 상태가 나타날 때마다 M이란 심리적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물론 심리적 상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모든 생물에게 공통적인 물리적 상태의 종류와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것은 인간에게만 공통적인 물리적 상태의 종류와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은 각 개인마다 특이한 물리적 상태와 일치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똑같은 내용의 심리적 상태라고 해서 언제나 똑같은 물리적 상태와 일치하게 될 것이냐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심리적 상태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가지 요소로 된 복합적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적어도 그 구조의 기본요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고정된 물리적 상태와 일치되지 않을까 한다.

하여튼 이것은 뇌신경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리가 될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상태의 모든 내용이 그것과 일치되는 물리적 상태로 표현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과학의 발달은 그러한 일치관계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가리라는 데는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이다 (Kim, 1972, 188 - 192).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심리적-물리적 일치관계를 긍정해 주는 과학적인 자료가 축적된다고 해서 그것이 심신동일론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동일론이 참이라고 할 때 그러한 일치관계는 성립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일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동일론이 잘못되었음을 말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동일론을 가정해야만 그런 일치관계가 성립함을 추리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 독립된 것이지만 서로 인과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Interactionism** 이나 **Double-Aspect Theory** 를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치관계는 성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치관계가 부정될 경우 **Interactionism** 이나 **Double-Aspect Theory** 도 부정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그런 일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심리적 상태 (**Disembodied mental state**) 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것은 유물론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유물론의 입장을 가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치관계가 성립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유물론의 입장 안에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 동일론과 다른 이론들을 결정적으로 구별해 주는 역할을 못한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론이나 다른 대립되는 이론들을 위한 경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치관계에 관한

자료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이론들이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가름 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다 (Kim, 1966).

동일론의 경험적 근거에 관한 이상의 논리적 성질을 기호화해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심신동일론을 IT라고 하고 그것이 함언(imply)하는 심리적-물리적 일치관계를 CR라고 할 때

$$IT \rightarrow CR$$

라는 조건관계가 성립된다. 만일 CR가 거짓이라면 부정논법(Modus tollens)에 의해서

$$IT \rightarrow CR$$

$$\sim CR$$

$$\therefore \sim IT$$

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CR가 참일 때는

$$IT \rightarrow CR$$

$$CR$$

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IT가 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만일 동일론과 대립되는 Interactionism을 IA라고 한다면 IA도 CR을 함언하므로 위와 똑같은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즉, IT와 IA는 어느것이든 CR을 함언하므로 CR의 부정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하게 된다.

$$(IT \vee IA) \rightarrow CR$$

$$\sim CR$$

$$\therefore \sim (IT \vee IA)$$

$$\therefore \sim IT \wedge \sim IA$$

그리고 CR가 참이라고 해서 IT나 IA 중 어느 하나가 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IT는 CR을 함언하는데 IA는 $\sim CR$ 을 함언했다면, CR가 참일 경우 적어도 IT와 IA 중 IT쪽을 지지해 주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IT와 IA가 모두 CR을 함언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두 이론들 간의 판별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동일론을 택해야 하는가?

4. 存在論的 單純性

몸과 마음에 관한 유물론적 이론들 중에서 동일론을 택하게 하는 선택기준은 單純性(Simplicity)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심리적 상태와 물리적 상태를 각각 독립된 종류의 상태로 두기 보다는 그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만큼 기본적인 상태의 수가 줄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는 단순성은 흔히 과학에서 이론적 환원을 통하여 얻는 단순성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과학적 이론의 환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리적-물리적 법칙(Psychophysical law)이면 된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리적-물리적 일치관계가 동일론을 필요로 하지 않듯이, 그러한 일치관계가 법칙성을 띠게 될 때도 동일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론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단순성이란 과학적 이론체계의 단순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상태의 수를 적게해 주는 存在論的 單純性(Ontological simplicity)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Kim, 1966, Brandt and Kim, 1967).

이상과 같은 김재권교수의 이론에 따르자면 심신동일론이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events, states, 또는 facts의 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이지 않겠다는 존재론적 단순성을 추구하는 이론이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存在論的 일원론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상태가 물리적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리적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인식되는 방법에 있어서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구별될 수 있음을 뜻하는 認識論的 二元論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신동일론이 갖는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인식론적으로는 二元論을 인정하면서 존재론적으로는 一元論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Kant가 현상의 세계와 물자체의 세계를 구별해서 생각하고자 한 것과는 비슷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은 우선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 또는 인간의 인식에 나타나는 세계가 곧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바 대로의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인식에만 의존하는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 즉 더 근원적인 세계에 대한 견해가 될 수 있는 세계관을 설정해 보게 하는 것이다.

에컨대, 存在論的 一元論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다른 생물들의 존재와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무생물인 물질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도 우주적인 진화의 산물일 뿐 아니라 인간의 운명도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리라는 입장을 받아들여지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심신동일론이 存在論的 一元論으로 그친다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가치의 세계라든지 의미의 세계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存在는 인간의 認識을 선행한다. 그러나 가치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認識이 인간의 存在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다.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떤 가치를 체험하고 창조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함으로써 심지어는 인간 존재의 가치까지도 그러한 가치의 창조나 체험에 결부시켜서 결정하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認識의 영역이란 다른 아닌 물리적 상태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상태인 그러한 종류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세계가 어느 한 개인의 경험세계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동일론은 그것이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관계를 存在論的으로 그리고 認識論的으로 규명해 줌으로써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이다.

< 참고문헌 >

- 1) J. Kim, "On the 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966, 227 - 235. Reprint in D. M. Rosenthal, ed., *Materialism and Mind-Body Problem*, 1971, Prentice-Hall ; and in J. O'Connor, ed., *Modern Materialism: Readings on Mind-Body Identity*, 1969, Harcourt, Brace & World.
- 2) R. Brandt and J. Kim, "The Logic of Identity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1967, 515 - 537. Reprint in O'Connor, ed., *Modern Materialism: Readings on Mind-Body Identity*.
- 3) J. Kim, "Psychophysical Laws and Theories of Mind," *Theoria*,

□ 蘇興烈

1967, 198 – 210.

4) J. Kim, "Reduction, Correspondence and Identity," *The Monist*,
1968, 424 – 438.

5) J. Kim, "Materialism and the Criteria of the Mental," *Synthese*,
1971, 323 – 345.

6) J. Kim, "Phenomenal Properties, Psychophysical Laws, and the
Identity Theory," *The Monist*, 1972, 177 – 192.